

“광주에 빛진 마음 ‘따뜻한 손’으로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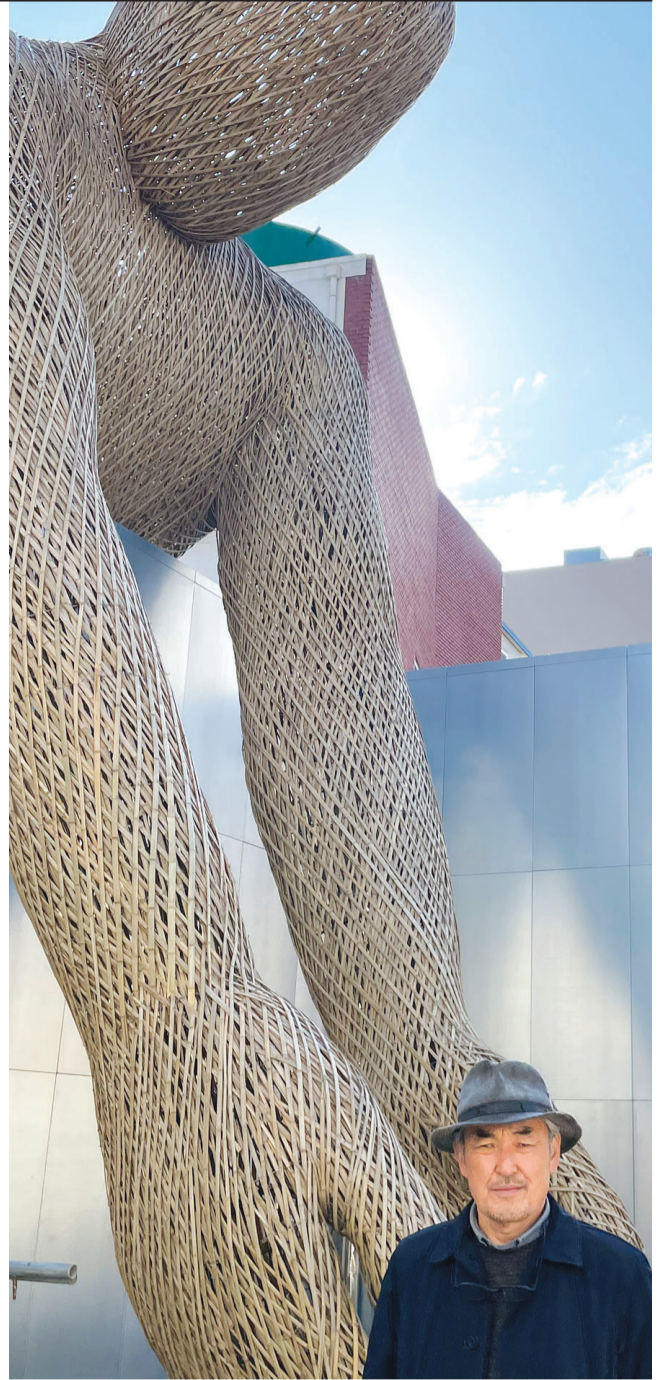
최평곤 작가 조형물 ‘따뜻한 손’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 설치 광주기억자원 공공미술에 담아

“따뜻한 손”이 그리운 시절이다. 아니 그리운 시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또한 폭압의 시대에 겪어야 했던 상흔으로 인해 여전히 상실의 고통과 깊은 트라우마에 짓눌리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절이 각박해지면서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이들도 예전처럼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물론 ‘따뜻한 손’이 물질과 물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배려하는 마음, 나아가서는 예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작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광주는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인 5·18민중항쟁이 일어났던 곳이다. 요즘 가장 핫한 12·12 쿠데타를 모티브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신군부가 군력을 찬탈한 무도한 사건이었다. 이듬해 신군부는 민주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학살했다.

“저는 늘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빛진 마음이 있었어요. 오월 광주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 모두의 아픔이자 슬픔이었지요. ‘따뜻한 손’을 제작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공공미술 작품 ‘따뜻한 손’을 동구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 설치한 최평곤 작가. 최 작가는 5일 미로센터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비극의 시대를 이겨내고 현재를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전해주고 싶었다”며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번 작품 ‘따뜻한 손’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눈에도 그는 고전적인 예술가의 인상이었다. 아무렇게나 빛은 머리와 선 굵은 얼굴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다른 무엇보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철학을 견지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정체성, 내지는 본질을 말해주었다. 최 작가의 작품은 입진작에도 설치됐었고, 김제 벽골제 ‘쌍용’도 그의 작품이다. 조형 작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익히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작품(10.4m×5.4m×6.5m)은 4개월에 걸쳐 대나무와 스테인레스로 제작했다. 그의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큰 조형물이며, 이번 설치를 위해 15t 트럭 2대에 4개로 분해해 옮겼다는 후문이다.

작품 ‘따뜻한 손’이 의미있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개관한 미로센터(센터장 한창운)에 설치됐다는 점이다. 미로센터가 공공시설 활용과 문화차지, 공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광주 기억자원을 공공미술에 담아 공동체 정신, 인간 생활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천혜원 팀장은 “환경과 광주 정신 등을 고려했을 때 대나무를 재료로 하는 작품이라면 가장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 작가의 이번 ‘따뜻한 손’은 시의적절하면서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최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군 제대 후 배 권유로 세종대학에 진학했다. “저의 작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동시대성과 그 시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람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우리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니 시대를 초월해 요구되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뜻한 손” 앞에 서면 ‘큰 사람’ 손에 안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대나무의 따뜻한 질감과 부드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모든 것이 실적

과 성적으로 계수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조건도 불문하고 두 손으로 환대해주는 이(작품)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 일이다. 최 작가는 “내부 프레임은 스테인레스를 열처리해 구조를 엮어기에 철보다 강하다”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위에 대나무 등을 덧씌워 새로운 작품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구적 보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도. 최 작가는 장소적 스토리를 우선적으로 고민해 형태와 규모를 결정해 드로잉작업을 했다. 이후 골조 설계를 한 뒤 모형 제작했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대나무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서 이상과 현실을 매개하는 평화의 메신저”라며 “최평곤은 이 작품을 통해 ‘광주에 빛진 마음’을 담아 따뜻한 손을 내민다”고 의미를 평했다. 최 작가는 97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민미협과 함께 5·18 전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2020)이 마련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평화의 손’을 전시한 바 있다. 한편 개막식은 오는 7일 오후 4시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따뜻한 손’ 앞에서 포즈를 취한 최평곤 작가

시와 그림, 가곡이 함께 ‘임원식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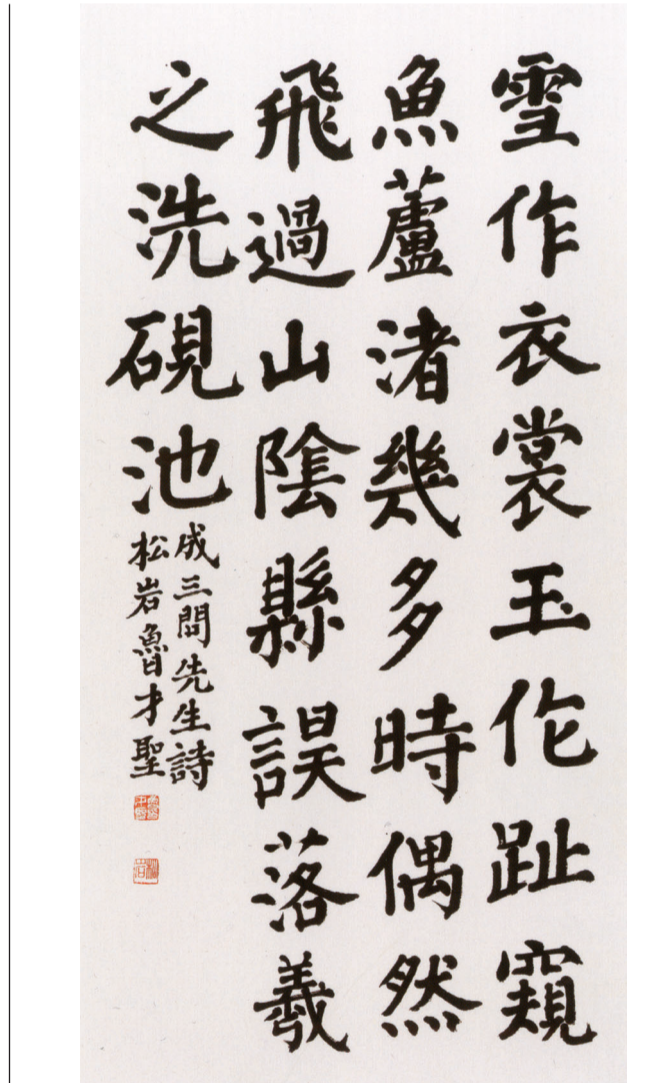
14~20일 유스퀘어 문화관 15일 금호아트홀서 개막식

‘시와 그림, 가곡이 함께하는 예술여행’. 지역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메세나 정신의 중요성과 미술품 수집 의의를 알리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예총 임원식 화상이 ‘임원식 컬렉션 전’을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전시실에서 연다. 시인이며 미술컬렉터인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은 그동안 창작활동을 하는 동안 다양한 미술품을 수집했다. 출판 작품은 모두 80여 점이며 기획은 윤익 아트광주 감독이 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호남 미술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화를 비롯해 서양화 등 근현대 주요작가 중심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국화는 허형, 허백련, 손재형, 구철우, 허

건, 장덕, 김일로, 김종현, 조방원, 김명제, 권병렬, 나상목, 허남호, 김옥진, 박행보, 이돈홍, 김대원, 박문수, 허임석, 박수봉 등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서양화, 조각, 사진은 오지호, 김환기, 양인옥, 오승우, 오승운, 황영성, 강연균, 우제길, 오건택, 이강하, 한희원, 송필용, 리일천, 김병수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관련 개막식은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 이어 ‘빛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공연이 펼쳐지며, 신동민이 기획을 맡았다. 김미옥 사회로 진행되는 공연은 먼저 소프라노 김선희가 ‘시가 내게로 온 것’으로 막을 연다. 이어 김백호 ‘나뭇잎이 흔들릴 때’, 정상의 ‘한줄 시를’, 윤하나 ‘아침 목련’, 임영민 ‘햇빛 필이’, 신은선 ‘해남’, 방대진 ‘나주배’ 등이 선사된다. 천현주 피아니스트와 이지은 피아니스트는 각각 ‘구절초에게’, ‘사모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임원식 화상은 “호남 미술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화, 서양화 등의 근현대 주요작가 중심의 체계적인 컬렉션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아름다운 가곡을 감상하는 미술, 문학, 음악의 총체적인 예술의 나눔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재성 작 '水墨驚圖 成三問'

98명 작가 ‘수연회’ 전

오늘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올해로 제11회째 회원전을 개최하는 수연회. 수연회(壽筵會)는 명칭에 목수(壽), 벼루 연(硯)자가 들어 있는 명칭이다. 회원들 모두 장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회원들은 이점숙 지립한문서예원장의 지도로 오랫동안 글씨를 써왔다. 수연회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수연회전’을 6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98명이 98점을 출품했다. 참여 작가로는 노재성 회장, 강석호, 강은필, 강운석, 고재환, 구해우, 기갑서, 김국환, 김귀재, 김기일, 김남오, 김학봉, 유수영, 정극주, 문준규 등이다. 노재성의 성삼문 선생 시 ‘수묵노도’를 선보인다. ‘하얀 눈으로 옷을 입고 옥으로 발을 가졌네/ 갈대 사이로 물고기를 엿본 것이 몇 시간이다/ 우연히 산을 현을 지나다가/ 벼루 씻던 못에 잘못 떨어졌구나’ 위 성삼문의 시를 읽다보면 그의 절의를 느끼게 된다. 글씨에는 성삼문의 절개와 지조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듯하다. 다산 정약용의 ‘하일교행’은 여름날의 풍경을 서정적, 서정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임성규 작가의 글씨에서 다산의 사유와 감성을 일정 부분 느낄 수 있다. 한편 노재성 회장은 “학연후지부족(學然後知不足)이란 말을 실감합니다. 부디 감상하시면서 작품 속에 스민 각고의 흔적을 높이 사주시기만을 양망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형형색색 ‘선의 기억과 행방’

은암미술관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아라이 요시노리 작가 7일까지

실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밀어 표현된 선은 세미하면서도 이색적이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생성된 선은 마치 다채로운 빛을 투과한 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다. 가느다란 선, 두꺼운 선, 색을 입은 선, 더러는 농도가 열어서 굵기의 흔적도 있는 선 등 다양한 선들의 경연장 같다. 레지던시 결과를 볼 수 있는 전시실에 들어서면 색, 잉크, 종이 등을 활용해 구현한 다채로운 작품을 만난다. 일정한 리듬으로 표현된 형형색색의 선은 화려하면서도 고아한 이미지를 발한다. 은암미술관에서 오는 7일까지 열리는 ‘SEN(선)의 기억과 행방’ 전. 약 50년 간 판화를 중심

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유로운 역할을 탐구해온 일본 작가 아라이 요시노리의 작품이 출품됐다. 1972년 가나가와현에 있는 토키이대학 교양학부 예술학과를 제1기로 졸업한 아라이 요시노리가 SEN(선)을 발견한 것은 40년 전. 그동안 작가는 판화를 바탕으로 입체 조형, 퍼포먼스 등을 시도해왔다. ‘SEN’은 ‘선’을 말하며, 영어로는 ‘line’이다. 작가가 새로운 표현을 모색하다 실험적으로 실시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선을 균등한 간격으로 반복해 당기는 퍼포먼스를 매개로 작품



이 완성됐다. 사토 토모야 미술 평론가는 “작가는 종이와 거리를 두고 전체를 바라보며 균형을 확인하고, 때로는 잉크의 색을 바꾸어 색조를 조절하며 화면을 선으로 채워 나간다”며 “작품은 적색, 녹색, 황색, 흑색을 사용해 완성되는데 순서대로 태양, 자연, 수학, 대지를 상징하며 나아가 삶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의미한다”고 평한다. 정여섭희 학에서는 “작가는 1971년 대학 4학년 때 졸업 연구 컨셉을 찾기 위해 방한해 한국의 문화 등을 경험했으며 이후 40여 차례의 예술여행을 시도했다”며 “이번 레지던시에서는 작가가 30년 전에 한국에서 구입한 종이와 이번 새로 구입한 종이 위에

12월 광주극장 다채로운 영화

‘괴물’·‘조이랜드’ 등...9일 ‘너와 나’ 조현철 감독과 만남

광주극장이 12월 상영작들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로 찾아온다. 6일 개봉하는 ‘백남준: 달은 오래된 TV’는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의 삶과 예술세계를 최초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한국계 감독 앤디 김이 비디오 아트 작품 ‘TV부처’를 본 뒤, 5년 여에 걸쳐 제작했다. 2023선댄스영화제,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초청작. 9일 개봉하는 영화 ‘괴물’은 변해버린 아들의

행동을 보며 이상함을 감지한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으로, 아시아 최초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음악가 고(故)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다. 제76회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작. 한편 지난 10월 개봉 이래 2만 관객을 돌파한 ‘너와 나’의 조현철 감독, 박혜수 주연배우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극장을 찾아 GV(관객과의 만남)를 연다. 고등학생 세미와 하은이 서로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채로 살아가는 내용.

이외 성소수자에 대한 오마주이자 로맨틱 서사를 벗어난 성장담을 그린 ‘조이랜드’는 13일에 개봉 예정이다. ‘빅슬립’과 ‘만분의 일초’는 현재 상영 중이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이외에도 광주극장에서는 ‘광주극장 100년 관객이카이프’를 통해 관객이 직접 추천한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며 “100편 관람을 달성한 관객들이 추천한 ‘위대한 작은 농장’은 오는 9일, ‘해바라기’는 16일 상영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루빈 기자 rubi@